

세미나 스케치

한반도 경제포럼

행사 개요

지난 4월 24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 前 美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이 열렸다. 한반도경제포럼은 2005년 3월에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의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으로 출발한 월례 조찬포럼으로, 2012년부터는 『한반도 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관계와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①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매우 강함

북한은 그동안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핵 개발에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매우 확실하다는 증거로는 신헌법에 북핵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핵을 '전략적 억지' 수단이며, '만능의 보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하여 핵개발이 국가 건설의 또 다른 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②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20여년간 북핵 폐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7~1999년 4자회담, 1999년 페리 프로세스, 2000년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방북, 2005~2008년 6자회담, 2012년 2.29 합

의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에 경제·농업 지원, 정치·경제적 관계 정상화, 식량, 비료, 경수로, 연락사무소 설치, 정전협정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했다.

③ 대가를 통한 북핵 관리 시도에 실패하였음

지난 20여년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유인책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 역시 조용한 외교를 통해 북한을 중국식의 점진적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단계적으로 핵포기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유인책 역시 실패하였다.

④ 북한은 오히려 핵 역량을 강화하였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활용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핵 개발 역량을 키워나갔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 무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며, 핵실험은 반드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추진할 지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추진할 것인지를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최근 북한은 비핵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1994년 제네바 합의 시기부터 2007년 6자회담 중단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비핵화의 정의를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인식·규정하였고, 북한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비핵화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재정의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 핵무기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면 북핵 폐기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⑥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에 위협으로 작용

6자회담 중단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전문가들은 3~5년 이내 북한이 핵 무기의 소형화·경량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그렇지 않아도 긴장감이 감

도는 동북아 정세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⑦ 신중하게 미래를 예측해야 함

미국과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추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도 국방력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유인책보다는 금융제재를 포함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외교적 해결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

⑧ 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함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더욱 관심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으나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⑨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비해야 함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의 유일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는 내부의 반발을 억제하고자하는 지도자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⑩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문제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함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화해·협력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조롱과 모욕'이었다. 북한은 아직 남한과의 협력 파트너로 나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